



이강인

# 이강인, 벤투호 바꿀 수 있을까

내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  
월드컵 선수 선발 마지막 테스트  
이강인 활용파라 배치 달라져  
김민재 센터백 파트너도 관심  
손흥민·황의조·황희찬 화력 점검

2022 카타르 월드컵으로 향하는 벤투호 승선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3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른다.

11월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정한 A매치 기간은 이번 9월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전과 27일 카메룬전은 벤투 감독이 최종명단을 확정하기 전 주요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테스트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대표팀이 카타르로 출국하기 직전 평가전을 한 차례 더 치를 수 있지만, 이때는 해외파 선수들 소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투 감독에게 이번 코스타리카전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를 가려내는 것이다.

벤투호는 그동안 선수 면면에 큰 변화를 안 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마저 들었다.

하지만 스페인 라리가에서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윙트립을 한 이강인(마요르카)이 대표팀에 1년 6개월 만에 전격 복귀하면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앙 미드필더부터 공격 2선, 때로는 최전방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벤투호의 선발 배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벤투 감독이 만약 이강인을 중용한다면,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치는 '벤투호 황태자'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황인범을 중앙에, 이강인을 측면에 배치해 상생도 도모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공격적인 선택지여서 본선에서 만날 상대국의 전력을 고려하면 무리수가 될 수 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후보 옵션'으로 테스트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강인으로서의 소속팀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고,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을 더욱 빠르게 가져가야 벤투 감독의 선수 위 옵션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올 시즌 K리그1에서 8골 4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으로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강원FC 공격수 양현준도 작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벤투 감독도 "이번 두 경기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도록 시도하려고 한다"며 변화를 직접 예고했다.

수비의 중심축인 김민재(나폴리)와 '센터백 듀오'로 누구를 내세울지도 이번 2경기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벤투호 최고 무기인 손흥민(토트넘), 황의조(울림피아코스),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해외파 공격수 3인방은 '화력 점검'에 나선다.

손흥민은 소집 직전에 열린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폭발하며 부담을 시원하게 날려 보였다. 팬들은 손흥민이 새로 발탁된 대표팀 붉은 유니폼을 입고 또 한 번 득점포를 가동해 주기를 기대한다.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김민재가 21일 오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은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과 평가전을 한다. /연합뉴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28위, 코스타리카는 34위에 있다.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4승 2무 3패로 앞선다.

기록상으로는 한국이 다소 우위에 있지만, 3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8강까지 간 코스타리카는 무시하기 어려운 북중미 강호다.

이번에는 뉴질랜드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까지 치른 끝에 카타르행을 이뤘다. 32개국 중 가장 늦게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코스타리카는 유럽 무대에서 오래된 최전방 공격수 조엘 캄벨(레온)을 앞세운 역습에 강점을 보인다.

북중미 축구 사상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는 케일러 나바스(파리 생제르맹)는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 “지명 받고 처음 마운드 오른 기분” KIA 김기훈 챔필 찾아 전역 신고

상무에서 느낀것은 밸런스  
오랜만에 1군 무대 기대 커  
욕심 안 부리고 던지겠다



전역하는 날 첫 일정이 훈련이지만 '예비역' 김기훈은 "재미있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국군체육부대에서 복무를 했던 KIA 타이거즈의 좌완 김기훈이 21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전역 신고'를 했다. 같이 전역한 내야수 홍중표와 함께 익숙한 곳을 찾은 김기훈은 일상복 차림으로 인사를 한 뒤 훈련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라운드에 올랐다.

22일 1군 엔트리 등록이 예정되면서 바로 KIA 선수로서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김기훈은 첫 훈련이 끝난 뒤 "기상나팔송을 듣고 일어나서 왔는데 실감은 나는데 아직은 여안이 병병하다"며 "첫 훈련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훈은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19년 1차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기대주'다. 좋은 구위로 기대감을 키웠지만 제구에서 아쉬움을 남긴 그는 2021년 상무야구단에서 국방의 의무 수행에 나섰다.

떠나있는 동안 야구에 대한 간절함을 더한 김기훈은 "방향"을 찾는 데 주력했다.

김기훈은 "아무래도 나는 특별한 조건에서 군복무를 했다. 야구를 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 잘하고 싶고 더 간절함이 생긴 것 같다. 군대 가기 전에는 공도 자신 있게 못 때리고 여러 단점이 있었다"며 "상무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었다. 그 길로 방향성을 잡아서 잘 준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가장 배우고 느낀 부분은 '밸런스'다.

그는 "야구 밸런스 부문에서 깨달은 게 있다. 몸으로 나한테 맞다고 느껴지는 있는데 공을 던질 때 자신 있게 던질 수 있게 됐다"며 "입대 전에 형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오라고 했다. 들어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보고 생각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방향도



김기훈

있고, 저런 방향도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 아직은 완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길은 찾은 것 같다. 그 길로 계속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밝은 표정으로 KIA에 복귀했지만 팀 상황이 좋지 않다.

긴 연패에 빠지는 등 5위 자리로 위태로워진 운명의 가을, '뒷심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김기훈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김기훈은 공은 물론 '마음 컨트롤'에도 신경 쓸 생각이다.

김기훈은 "경기에 나서면 다시 지명을 받고 마운드로 가는 느낌일 것 같다. 오랜만에 1군 경기라 팬도 많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 자신을 더 조절해야 할 것 같다. 팬들 많으면 재미있으니까 욕심이 넘칠 수 있으니까 마운드 올라가서 나 자신을 잘 조절해야 할 것 같다"며 "상무에서도 마운드에 올라가면 연습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올라가면 연습하던 것만 하자는 생각으로 욕심 안 부리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대에서 항상 KIA 야구를 봤다. 좌완이 진짜 많더라(웃음). 모든 왼손 투수들 장점이 있는데 궁금했다. 잘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 잘하는지 경기 보면서 궁금했었다. 왔으니까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고 배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에런 저지가 21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홈 경기 9회말 피츠버그 마무리 윌 크로를 상대로 60호 홈런을 터트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 양키스 에런 저지 시즌 60홈런 '황'

에런 저지(30·뉴욕 양키스)가 21년 만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60홈런 고지를 밟고 현대 야구사에 한 획을 그었다.

저지는 21일 열린 2022 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홈 경기에서 시즌 60번째 홈런을 날렸다.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저지는 4-8로 뒤진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피츠버그 마무리 윌 크로를 상대로 좌측 담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그는 볼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에서 가운데 물린 싱킹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공략했다.

이로써 저지는 배리 본즈(73개), 마크 맥과이어(70개·65개), 새미 소사(66개·64개·63개), 로저 매리스(61개) 베이브 루스(60개)에 이어 MLB 역사상 6번째로 60홈런 고지를 등정한 선수가 됐다.

MLB에서 한 시즌 60홈런 기록이 나온 건 2001년 본즈(73개)와 소사(64개) 이후 21년 만이다.

이들 중 본즈와 맥과이어, 소사는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MLB에선 매리스와 루스를 진정한 홈런왕으로 인정한다.

저지는 이날 60홈런을 날리며 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제 저지는 매리스가 1961년에 세운 양키스 및 아메리칸리그 단일 시즌 최다 홈런(61개)을 넘는 신기록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테니스 황제' 페더러 은퇴 무대 유럽-월드 '레이버컵' 23일 개막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1·스위스)의 은퇴 무대인 레이버컵 테니스 대회가 23일부터 사흘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레이버컵은 팀 유럽과 팀 월드의 남자 테니스 대항전이다.

2017년 창설된 이 대회는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다.

올해 레이버컵은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트스컵과 같은 기간에 펼쳐진다. 작년 레이버컵은 라이더컵과 같은 기간에 열렸다.

특히 올해 레이버컵에는 남자 테니스의 '빅4'로 불리는 페더러, 라파엘 나달(36·스페인),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 앤디 머리(35·영국)가 모두 유럽 대표로 출전한다. /연합뉴스